

부활 제2주일

기도서 283면(다해)

제1독서: 사도 5, 12-16

제2독서: 독시 1, 9-11a, 12-13, 17-19

복음: 요한 20, 19-31

# 숲정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0, 21).

## 강론

###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소순 형신부 / 동산성당

우리는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종교적으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가?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두 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하느님 존재 자체에 대한 신앙이고 또 하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란 약한 인간이 의지할 데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류의 하느님께 대한 불신앙자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앙자로 살 수 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불신앙자는 많을 것이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확신감이 없다. 하느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기 보다는 돈이나 재물이 더 의지한다. 하느님께 도움이나 힘을 구하기 보다는 인간의 도움이나 힘을 더 많이 믿고 자기 자신에게 더 의지한다. 하느님은 당신이 우리의 구원이요, 행복이고 생명이라고 하시지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이 나를 더 지배한다. 하느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그분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다.

우리는 하느님이 계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위와 같은 생활 태도는 오늘 복음의 토마 사도와 같이 나 역시 불신앙자임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 소리

### 兵器는 兪器라는데…….

‘자위권’이란 생경한 말이 우리 귀에 자주 들리기 시작한 건 光州민주화운동 이후였다.

이 자위권의 망령이 이제는 光州라는 지역을 벗어나 전국민을 상대로 발동하겠다는 망상이 정부쪽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는 전국의 지·파출소에까지 M16소총을 지급,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거나 경찰이 위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때 발포할 수 있게 한다는 결정을 내려버렸다.

국민과 야당쪽에서 적극 반대하고 나섰으나 정부쪽에선 오불관연(吾不關焉), 시위자나 국민의 생명보다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의 수호를 부르짖고 나섰다.

이 체계에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심히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그동안 경찰의 장비가 허술하고 원시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공권력이 무디어지고 치안질서가 안잡히는가에 있다.

다시말하면 근본 치유책은 생각치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타개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이 시위를 하고 화염병을 던질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물론 공공질서 파괴나, 건물의 방화, 인명에 피해를 주는 시위대의 행위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시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과감히 해결한다면 시위자체가 없어질 것은 뻔한 이치인데도 문제점은 그대로 놔둔채 겉으로 나타난 문제해결만 생각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名醫는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完治시키는 법이다.

兵器는 兪器라는데 만고의 진리다.

自衛를 위해 ‘카빈’대신 M16을 지급하는 건 격화소양(隔靴搔癢), 구두를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 거나 마찬가지다.

## 숲정이 산책



환영합니다! /

## 부활 - 사랑의 승리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불신에 대한 믿음의 승리요,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이며, 무엇보다도 미움과 죄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이 「사랑의 사람」인 예수의 죽음에 대해 이사야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앓아 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그를 찢은 것은 우리의 반역죄였고 그를 으스러 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53.4). 즉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대로 사랑의 삶을 살았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비록 사람들 눈에는 천덕꾸러기요, 바보로 보일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욕하고 견어차고 조롱하는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그 삶은 새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꼭 같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가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애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하여라”(요한13.35).

왜냐면 ‘하느님은 사랑’ 이시기에 하느님 나라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사랑이 없는 자에게 천국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사랑없이 결코 행복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떠나서는 참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랑을 떠나서 참된 인간 사회도, 세상도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회의 화해와 이 땅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밥’이 되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또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차게 타오르는 부활초처럼 자신을 태워 사회를 밝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부활메시지」중에서)



### 성서와 함께

## 42. 구약성서의 문학유형(C) : 성서의 신화와 설화

### 1. 신 화

이제 구약성서가 간직하고 있는 신화들의 몇 가지 특징을 간추려 보자.

가. 구약의 신화들은 이야기의 형태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주관적 위업을 소개한다.

나. 이 신화들은 보이지 않는 신들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환상적 사건들이 아니라, 야훼께서 당신 백성과 더불어 인간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다룬다.

다. 신화적 이야기들은 의례히 히브리 경신례 안에서 극화되어 반복되긴 하지만 그 주 목적은 이리 저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리라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경축하기 위한 것이다.

라. 구약의 신화는 자주 사물이나 종교적 관습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창세1,1-2,4은 안식일의 기원을 밝힌다).

### 2. 전 설

“전설”이라 하면 “전설따라 삼천리”에서와 같이 신빙성 없는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구약성서의 많은 부분이 전설이라고 말하면 이는 성서 전체의 진실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를 학문적으로 이

해하려고 할 때, 성서에서의 “전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설화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가. 신화와는 달리 전설을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실제의 인간을 다룬다. 그러나 전설은 시간적으로 현재로부터 거리가 먼 사건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전설의 사건은 때때로 잘 알려진 지역 안에서 일어난다.

나. 전설은 흔히 역사적 실재(實在)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 역사적 실재가 전설의 근본 구성 요소는 아니다.

다. 전설은 인생의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현재적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설명한다. 또한 과거의 영웅들과 신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덕행을 기리고 찬양함으로써 현재 생활의 믿음과 가치를 재천명해 준다.

라. 전설도 신화처럼 신앙과 관련된 어떤 신성한 장소나 관습의 기원을 설명한다(참조: 창세28,10-22; 창세17장; 여호4,20-24).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곧 아브라함을 위시한 성조들과, 모세,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에 얽힌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전설에 속한다.

### 김치 각종조림전문

회 갑·결 혼  
모임·야외단체  
주문 신속배달  
정 순덕(수산나)  
☎ 4-1559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 또

☎ 84-2628

한방보약·예방의약  
용(元葺) 九蒸葺 인삼



### 영세당약국

약사 정우진(이시약) 황신숙(리브기)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잡 관!

「단 돈 천원이 성전을 짓습니다.」

전주에서도 오지(奧地), 내(川) 건너 서신동에 성전을 짓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700여명, 그나마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 보니 여간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꼭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본당 신부(박성팔·안드레아)와 신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본당을 넘어선 많은 교우들, 심지어 비신자들 까지도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교우들! 그런데 이미 1억2천만원의 신축현금이 신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4억원에 가까운 신축비를 충당하기에는 아직도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서신동 교우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주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열의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서신동 교우들만의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성전이 없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도록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십만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 천원씩만 도와줘도 1억이 모아집니다. 형제의 단 돈 천원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는 4월6~9일까지 바자회를 중앙성당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꼭 좀 들려 주시고 천원씩 하는 경품권 한 장이라도 잊지 말고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품권 당첨자 발표는 다음주 숲정이에 공고 합니다. 행운있길 바랍니다.

교 구 소 식

1. 사목방문 : 7일 10시 중앙성당
2. 썰 테크닉 연수 : 4월9일(일) 오전9시30분 장소-해성중교 강당 대상-각본당 썰 회원 전원 참가비-1인당3,000원 내용-썰의 영성, 시범썰 등
3. 대학생 연합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4월9일(일) 오후2-7시 가톨릭센터
4. 성소주일 행사 : 4월16일(일) 오전10시 장소-해성중교 강당 대상-교구내 모든 중·고, 대학생 및 일반 준비물-미사도구, 필기도구, 중식, 미술도구 등
5. 성체성년 대피정 안내 : 4월8일(토) 오후1시-7시 전주중앙성당 초청강사-정대식 신부(갈멜수도원장), 김동준 신부님 김바다살 회장의 특송(오순절 봉사회장) 참가비 1,000원
6. 사회복지(사랑의 다리) 후원회 월례미사 : 4월3일 10시30분 사회복지회관
7. 테클라 성소자 모임 : 4월2일 오늘 오후2시 성바로로 딸 수도회 전주분원(성바로로 서원) 2층-수도성소에 관심있는 젊은여성들의 모임입니다.
8.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4월3일 오후7시 가톨릭센터.
9. 치명자산 금요미사 : 전주교구 5인서복시성과 성지개발을 위한 미사가 매주 금요일 10시30분 치명자산에서 있습니다.
10. 전화번호 변경 : 여산 성당-사제관·수녀원53-5016 사무실53-5277, 나운성당-수녀원 61-2442

- 원고모집 : 매월 마지막주 숲정이에 실릴 신자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다음의 투고 요령을 참조하여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원고마감 : 매달10일 원고량 : 「나침반」 종류별로 1매반, 코뚜레-4매내외, 인물, 성가 정 소개-6매 내외 기타 나누고 싶은 글-5매 보내실곳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 교구청 홍보국

특수조명·누전 책임수리·장식 무늬벨  
각종 조명기구, 가정용 전화기구  
전기 공사 자료, 제작 도산매

**광선(조명)전업사**

박 양기  
장 영자(세시리아)  
(전주백화점 건너편)  
☎ 84-4753

살아있는 정통 독일식 생맥주

**본호프레스토랑**  
BON HOF

대표 김 재봉 (베네딕도)  
군산시 중앙로 군산시청 사거리  
☎ 42-6291, 42-6292

**서신동 천주교회**  
성전건립을 위한  
비자회·경품권

바자회 : 1989년 4월 6~9일까지  
(오전10시~오후9시)  
경품권추첨 : 1989년 4월 9일(일)  
오후 5시  
장소 : 전주 중앙성당

**여사무원 모집**

자격 : 신자, 여성상신, 주산부기, 타자  
3급이상 자격증 소유자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생활기  
복부, 세기능 자격증, 이력서  
(사핀) 세례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원증명서, 각 1통씩  
제출 : 마감 89.4.7  
제출처 : 복지성당 사무실

**요십이** (817) 김병오



**직원모집**

모집부문 : 설타휴게실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대 상 : 고졸정도의 찬주교 신자(미혼여성)  
접수마감 : 1987. 4. 7  
전주 가톨릭센터

수시모집·원장 직접 개인지도

**전주노라노한복·양재**  
**출패션학원**  
원장 김 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  
☎ 86-2715

**결 속**

김동화 씨 삼남 **총화** (미카엘) 군  
김치덕 씨 장녀 **삼희** (루시아) 양

때 : 89. 4. 5(수) 13시  
곳 : 김재 요촌성당  
요촌성당 : 44-0151~3  
이화약국 : 2-2006, 2-2666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빵' 입니다.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1. 성령쇄신 세미나: 6일 7시30분 수원교구 성령봉사자 수고하셨습니다.
2. 소록도 방문: 대상-빠라골리도 빈첸시오회원 5일 오전7시출발
3. 반회장모임: 7일 10시30분 성미주머니와 저금통을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J.O.C순회 비디오 상영: 3일 7시30분 제복-위대한 복제자
5. 회의: 울드레아 오늘공식미사후 성심회 성가대월례회 4월4일 어머니미사후 ME장기팀 모임 7일 7시30분 꾸리아월례회-9일 2시
6. 세계성체대회 불행예물: 사무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 탈삼미사: 6일 오전11시 연령 김옥자(세시세아) 홍재규씨덕
8. 건축헌금: 신일요망 작업에 지장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봉헌금: 성토요일609,590원 부활주일712,430원  
 교무금: 68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군  
수녀원 86-3454

1. 사순절 저금통 봉헌: 오늘
  2. 서신동성당 신축헌금 바자회 추척권 판매
  3. 대건회: 오늘 공식미사후 4.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후 5. 밀알회: 5일 오후6:30 6. 청년회 단합등반대회: 4일5일 내장산 7. 제대회: 6일 오전10:30 8. 어머니 성가대월례회: 7일 오전11
  9. 여성분과회: 8일 오전10시 10. 울드레아: 9일 공식미사후 11. 꾸리아: 9일 오후2시 12. 빈첸시오회: 9일 꾸리아후 13. 청년회: 9일 저녁미사후
- 금주전례: 해설-윤귀자 독서①장동주 ②고희구  
    봉헌-장동주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유남 독서①최장기 ②이강남  
    봉헌-최장기씨 부부  
 지난주봉헌금: 983,050원  교무금: 1,506,8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1. 꾸리아: 공식미사후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3. 서신동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 4월6일~9일까지, 장소-중앙성당 경품권판매-당당1,000원(사무실) 서로 사랑으로 나눔시다.
4. 예비자교리: 공식미사후(회의실)
5. 구역미사: 의암-6일 저녁7:30
6. 성체강복: 6일 10:30 미사후
7. 사순절 저금통: 다음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지난주봉헌금: 284,570원  교무금: 58,000원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1. 회의: 사목회-4월6일(목) 오후7시30분 대학생회-4월7일(금) 사모회-4월5일(수) 오전10시30분
2. 모임: 세실리아성가대-4월8일(토) 오전10시30분
3. 알림: 고등부교리교사교육-4월2일(일) 오전9시30분(가톨릭센터) 초등부교리교사교육-4월5일(수) 오전9시30분(가톨릭센터) 레지오피정-4월6일(목) 9시30분(중앙성당) 단원들의 많은 참여 바람. 반장회의-다음주말 공식미사후에 있음. 전원 참석
4. 감사: 프란치스코 3회-성금3십만원 성미18kg의 3점(산청나환사촌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주전례: 해설-이주철 독서①조정웅 ②김한중  
    봉헌-강규선 니코나오 부부  
 지난주봉헌금: 674,800원  교무금: 832,000원

##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황 희 상

1. 헌수하실분 찾습니다: 사무실 접수
2. 돼지 저금통 봉헌하십시오.
3. 여자복사단 모집합니다: 3-6학년
4. 초중고 교리교사모집

5. 변경사할: 목·토-생미사 화·수·금-연미사
6. 성물판매 봉사자매님: 급 지원요망(사무실에 접수)  
 지난주봉헌금: 426,860원  교무금: 301,000원  
 돼지저금통: 573,236원  특별헌금: 700,000원

## \*전동

사무실 84-3222 ·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 ·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 · 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전 보수헌금 바랍니다. \* 89년 교무금 신입바람.  
\* 4월은 예비자 인도의 달 입니다.  
1. 본당신자 한혈: 오늘 9시미사후부터 오후3시까지(많은 협조 바람)  
2. 돈보스교회: 오늘 공식미사후  
3.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저녁 7시  
4. 반기도회: 4일~7일 · 반미사-4일-전동2만, 5일-중앙동1만, 6일-풍남동1만, 7일-동안산동1만  
5. 24시간 성체조배: 6일(목) 저녁미사후부터(각구역별로 계시관에 계시)  
6. 병자방문: 7일(금)  
 금주보수비 헌금액: 2,070,000  현재모금총액: 14,539,300  
 금주보수비 신입액: 21,860,000  현재신입총액: 85,936,000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현  
수녀원 87-0229

1. 부활절 체육대회 및 사제관·수녀원 축복식에 수고해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역장월례회: 2일(공식미사후)
2. 축 영세: 56명의 영세자와 4명의 첫영성체자에게 축하드립니다.
3. 장학회신입자: 강상근1, 이봉원1. \*아치에스행사: 5일(후1-4시) 신학생후회회 신입자-강상근1, 이봉원1, 최병남3, 최준1
4. 올겐구입을 위한 모금신입자: 김광환 20만원
5. 부활절 꽃봉헌: 최창숙, 송명선, 김덕자, 김태순, 김경남, 한소자, 박세실리아, 성모회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울드레아: 4일(저녁미사후) 6. 금주전례: 해설-박종구 독서①함문권 ②서영상 봉헌-윤인홍 부부  
차주전례: 해설-정순태 독서①김화영 ②자동호 봉헌-오수환부부 \*4·6일: 영세자 가정방문  
 지난주봉헌금: 632,770원  교무금: 504,000원  
 자선헌금: 137,120원  신축금신입총액: 145,534,836원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 종 현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1. 축! 영세: 부활대축일날 영세자들
2. 성령 세미나: 금주 월~토
3. 새 예비자반 모집: 일요일10:30 수요일7:30
4. 부활절 수고해주신 교우들께 감사
5. 모임안내: ①카리마스-금주금요일 10시30분(교육관) ②울드레아-다음주 11시미사후(교육관) ③클라라회-다음 수요일 12시(교육관)
6. 유아세례: 다음주일 오후5시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7. 청소년당: 금주-신춘주백 다음주-협동연립, 은성주백  
 지난주봉헌금: 952,510원  교무금: 1,451,700원  
 부활성야헌금: 402,120원

##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1. 사목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후
  2. 여성부 월례회: 7일(금) 어머니 미사후
  3. 안심공소미사: 7일(금) 오후7:30
  4. 꾸리아 월례회: 8일(토) 오후1:30
  5. 미사시간변경: 일, 화, 수, 목 오후7:30
  6. 차주모임: 울드레아 월례회
-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박성수 ②강덕사  
    기도-김영년 김현자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최재순 ②김동희  
    기도-송하영 한명희  
 지난주봉헌금: 774,340원  교무금: 881,000원